

## F1의 전설 '레인마스터' 아일통 세나

임두빈

### F1의 전설적인 레이서

궂가를 진동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지상 최고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F1 경기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에 속하며, 연 관중 400만 명, 200여 국가 생중계, 전 세계 시청자 약 6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상업적 선전 효과가 엄청난 스포츠이다. 그렇지만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국에 해당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게 있어 F1 경기는 아직 생소한 종목이다. 그러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라고 해도 누구라도 한번쯤 이름을 들어본 스타들은 항상 존재한다. 축구하면 펠레, 농구하면 마이클 조단이 대표적인 전설로 불리듯이 F1 경기에도 전설적인 레이서가 존재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천재적인 F1 레이서가 존재했더라면 '피겨 퀸' 김연아 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처럼 국민적인 영웅이 됨은 물론이고, F1경기 또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F1 그랑프리 역사 속에 전설은 펠레나 마이클 조단이 아직 생존해 있는 인물인 반면에, 경기 중에 사망(1994년)이라는 비극을 안고 있기에 그 전설의 빛이 더욱 강력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 출신의 아일통 세나 다 실바(Ayrton Senna da Silva)이다.<sup>1)</sup>

지난 2012년 5월 1일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경주 대회인 F1 그랑프리 of the 마지막 희생자인 세나가 사망한 지 13주년째 되는 날이었다. 매년 그

1) 현지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면 '아이르통 세나 다 시우바' 정도가 되겠지만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아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수용한 '아일통 세나 다 실바'로 표기한다. 이후에는 '세나'로 약칭한다.



고(故) 아일통 세나(출처: [www.autotecnica.com.br](http://www.autotecnica.com.br))

의 기일에는 비운의 주인공이지만 ‘천재’라 불린 세나에 대한 추도의 물결이 브라질 전국을 뒤덮는다. 세나는 여러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권위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로스트, 슈마허, 클라크 등 쟁쟁한 전·현역 레이서를 제치고 1950년 F1 그랑프리 창설 이전까지 포함하여 사상 최고 레이서로 뽑혔을 정도로 F1 세계에서 이슈 메이커였다. 이번 글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인 F1 경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왜 아일통 세나가 F1 그랑프리에서 전설의 레이서로 알려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F1 경기란?

2010년 10월, F1 그랑프리가 전남 영암에서 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최첨단의 경기용 슈퍼카와 세계적인 레이서들의 실력을 직



F1 경기용 머신

접 눈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1 경기는 1인 운전석에 큰 바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오픈 휠 형태를 띤 자동차 경주 중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회이름으로 1인용 경주 자동차 포뮬러(Formula)와 최고라는 의미의 넘버 1(one)을 합쳐서 만든 '포뮬러 원'(F1)을 가리킨다고 한다. F1경기는 국제 자동차 연맹(FIA)에서 주관하며 그 공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다. 각각의 F1 경주대회를 그랑프리(Grand Prix, 약어로 GP)라고 부른다. F1경기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19개국을 순회하면서 19개 경주로에서 승부를 벌인다. 경기 룰은 단순하다. 총 길이 5,615km인 트랙을 55바퀴를 돌아 총 길이 308,825km를 가장 먼저 도는 선수가 승자가 된다. F1 경주에 출전한 레이서들은 시속 300~350Km의 엄청난 속도를 유지하면서 2시간 정도를 트랙에서 달리는 것이다. 각 그랑프리마다 순위대로 승점을 부과하고 19개 그랑프리가 모두 끝나면 승점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 우승자를 뽑아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수여한다. 우승 트로피는 우승 레이서뿐만 아니라 경주용 '머신' 제작팀에게도 주어진다. F1은 이처럼 전세계에서 통틀어 5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의 톱 드라이버들이

고성능의 슈퍼카를 타고 벌이는 대회이다. 사실 F1에서 사용하는 슈퍼카는 ‘자동차’가 아니라 ‘머신’이라고 부른다. 일반 자동차의 회전 속도가 5,000~6,000rpm임을 감안할 때 F1 머신은 18,000rpm까지 사용한다. 한마디로 아무나 만들고 정비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실제로 F1 머신은 대당 백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1년 운영비도 수천억을 상회한다.

F1 경기용 머신의 제작은 거의 대부분의 공정을 최고의 기술자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천문학적이다. 장인 정신과 프리미엄 자동차메이커의 최첨단 기술이 집적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자본과 노동과 기술의 3박자가 최적으로 조화된 스포츠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영암에서 첫 개최된 코리아 그랑프리 이후에 2012년 10월12일~14일 간에 2012년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 세나는 어떤 레이서였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지만 세계최고 속도를 다루는 F1 레이서는 이 세상에 단지 24명만 존재할 뿐이다.

1960년에 출생한 세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지금 세나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누나 비비아니(Viviane)로부터 첫 카트차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는 13세 때 이미 카트 레이싱에 입문하여 23세에 F1에 진입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레이서였다. 세나가 치른 11년 동안의 시즌 중 3번의 월드챔피언과 총 41번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보다 주목할 만한 기록은 역사상 최다 폴 포지션<sup>2)</sup>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나는 ‘레인 마스터’, ‘미스터 모나코’ 등의 별명으로 불리

2) 최고 기록을 낸 선수가 결승 때 맨 앞자리에 서는 위치를 가리킴.



세나의 죽음을 보도한 BBS 저녁 뉴스 동영상  
캡처영상: [http://youtu.be/PMEv\\_XC6ObQ](http://youtu.be/PMEv_XC6ObQ)

며 80년대 F1 레이스의 흥행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로 회자된다. 한마디로 세나의 레이싱 특징은 마이클 슈마허나 프로스트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식보다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불꽃같은 경기방식에 있다. 특히, 그는 곡선보다 직선구간에 탁월한 주행능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세나는 1994년 산마리노 그랑프리에서 사망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차체이상으로 300km 속도 그대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여파로 벽에 부딪혀 튀어 나온 타이어가 세나의 머리를 강타하면서 한창 전성기인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당시 브라질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슈퍼카를 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하는 세나의 모습은 브라질의 자긍심 그 자체였다. 경제난으로 고달팠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지고 있던 브라질 국민들에게 최첨단 슈퍼카를 질풍같이 몰아 경쟁자들을 제치고 후련하게 결승점

을 돌파하는 모습은 하나의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다.

차가운 몸으로 고국에 돌아온 세나의 장례식은 브라질 국장으로 치러졌다. 사고 당시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슈마허가 유일하게 운구대열에 불참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실 세나가 사고를 당한 그날 사고의 징후가 보였다. 경기 전까지 세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치의가 경기 포기를 고려하라고 권할 정도로 불안정했다고 한다.

세나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F1 경기를 위한 공헌을 했다. 세나의 죽음 이후에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해 F1 룰이 일부 수정되었다. 안전장구 장착과 안전을 위한 차량구조가 변경되었고 서킷에서는 콘크리트 벽을 일부 없애고 가드레일과 타이어 벽, 샌드 트랩을 강화시켰다.

세나는 그 특유의 폭발하는 질주력으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파격적인 성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세나가 주행 중에 '신'을 봤다고 얘기하면서부터였다.

팬들을 잡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섭게 질주하는 세나의 주행방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레이서는 '신' 이야기를 기점으로 그를 경원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단체 사진마다 언제나 다른 선수들과 약간



세나의 묘비명: 무엇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 놓을 수 없다.



도닝톤 공원의 1993년 유럽 그랑프리 세나 우승 기념비





1984년 폭우 속 모나코 GP를 질주하는 세나

떨어져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나의 인기는 당시 1인자였던 프랑스의 프로스트 선수에 못지않았다. 이는 비만 오면 우승하여 '레인 마스터'라는 별명을 받은 특이한 경력 때문이었다. 왜 관중들이 세나를 보고 열광하는지 비만 오면 그가 보여준 마법의 드라이빙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총 아홉 명이 리타이어한 2010년 영암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도 그랬지만, 우중 레이스는 완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젖은 노면에 앞 차가 일으키는 물보라가 레이스의 시계를 가려 거의 동물 같은 직감에 의존해서 질주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선수가 악천후로 기권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추월을 해대는 세나의 모습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광시켰던 것이다.

특히, 1984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sup>3)</sup> 세나는 세계의 F1 팬들에게 잊

3) F1 레이싱의 흥행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관객의 접근성임을 감안해 일반도로를 막

을 수 없는 명장면을 연출해냈다. 워낙 난코스인데다가 이미 난 사고도 여럿 있어 레이서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서킷이자 예선 1위자조차 기권할 정도의 악천후 속에서 12대의 차량을 오버테이크(추월)하는 신기를 연출하는 세나의 모습에 세계는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이 날이 바로 F1에 갓 데뷔한 세나의 전설이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안타깝게도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되어 우승의 기회는 놓쳤지만 1987년 우승을 비롯하여 6차례나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을 휩쓸면서 ‘레인 마스터’ 이외에 ‘미스터 모나코’라는 별명이 추가되었다.

세나의 모나코 그랑프리의 기록은 오늘날까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 어려운 구간에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듯 세나는 승부욕이 엄청 강했다.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경기운용의 묘보다는 질주 그 자체에 몰입하는 세나는 동료로부터 경계의 대상,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위험한 레이서’로 분류되기도 했다. “Racing, Competing is in my blood.”이라고 세나가 남긴 말에서 레이싱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세나는 우승만을 추구하는 레이싱 기계가 아니었다. 경기 중 사고 난 선수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기권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고, 자신의 조국 브라질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400억을 기부한 휴머니스트이기도 했다. 그가 우승 후 선물을 사들고 뗏목을 타고 아마존 밀림을 여행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 세나의 전성기

1988년에 맥라렌이 당대의 최강팀 윌리엄스를 견제하기 위한 세컨 드라이버로 영입했던 세나가 팀 내 톱 레이서인 프로스트와 선두를 다투는

---

아 도심 한가운데서 치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도로의 난이 도로 추월이 힘들어 레이서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F1 서킷 중의 하나로 꼽힌다. 컴퓨터 레이싱 게임에서조차 회전 각도가 큰 난코스라 유명하다.



경쟁을 벌이면서 모든 대회를 싹쓸이(15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나와 프로스트 이 두 천재 레이서들이 같은 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빚어낸 결과라고도 평가한다. 그러나 이 둘의 악연은 89년(같은 팀 소속), 90년(다른 팀 소속)에 서로 상대를 견제하다가 89년에는 세나가, 90년에는 프로스트가 월드챔피언 타이틀을 각각 잃어버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두 사람의 상대 전적을 보면 5년간 세나가 3번의, 프로스트가 2번의 월드챔피언을 차지하여 세나가 우세해 보이지만 자동차국제연맹(FIA)이 비유럽계인 세나에게 노골적으로 불리하게끔 견제를 했다는 논란도 많이 일었다. 세나와 프로스트의 인연은 프로스트가 이적한 윌리엄스로 세나 역시 이적하면서 이어진다. 당시 최고의 머신과 라이벌을 보유하고 있던 윌리엄스로 이적한 후에 세나는 유명을 달리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아일통 세나의 일대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세나와 프로스트의 인연과 악연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이를 반영하듯이 다큐 영화 중간 중간에 프로스트와의 인터뷰가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두 사람간의 관계를 조명해 주고 있다.

---

임두빈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